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예비자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3-8/15  
(금요일 6시 Parish Center, 토요일 2시 사제관)
- 세례대상자 참고 및 예절연습:  
8월 15일(토) 오후 2시, Parish Center
- 세례식: 8월 16일 주일 미사 중

####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첫영성체 참고: 8월 22일 토요일
- 첫영성체: 8월 23일 주일 미사 중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26일: 김한식 8월 2일: 김성용

####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3,15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44.00
교 무 금	\$1,350.00

- 교무금: 오은총 최규선 서태수 박석현 배상진  
김성용 이인표 장유진 조주현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17주일 July 26, 2009



< 빵과 물고기의 기적 (부분) >

300-330년경, 대리석, 성 비오 크리스천 갤러리, 바티칸 박물관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먹고도 남을 것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에페소서 4,1-6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1-1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500단 1명	5,923단 34명
이호영	145단 1명	22,124단 150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645단 2명	2/22/04 -7/19/09 (282주)

총누계: 217,112단 12,78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7월26일	8월2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21      ♪ 봉헌: 512  
♪ 성체: 151 153    ♪ 파견: 29

# 생명의 말씀

##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서울대학교구 상설고해사목부

오늘 복음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풀이 많은 들판에 지쳐 있는 이들이 떼를 지어 앉아 있는 모습과 그들을 산 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마음속으로 그려 보노라면 이런 성가가 떠오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푸른 풀밭 시냇가에 쉬게 하사 나의 심신을 새롭게 하네.”

가톨릭 성가 54번입니다. 이 성가를 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고 부릅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자주 불릴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목자시니 하늘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도록 책임져주실 것입니다.’란 의미가 위로와 용기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를 유심히 보시고 오히려 그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냉장고의 음식들도 버리는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또 없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장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짐이 되어 버립니다. 인사이드 때마다 힘든 것이 바로 이삿짐을 싸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책을 정리하면서도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하면서도 언젠가는 읽을 거야, 살을 빼면 입어야지 하며 다시 짐 속으로 넣어버리는 저 자신을 보면 이삿짐이 아닌 욕심 덩어리들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많지 않아도 되고 부족해도 되며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려는 열의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 (마태6,25-34).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거나 부족한 것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며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오늘 복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의 덧셈은 이상하고도 특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90에 10을 더해 100을 만드십니다. 또 7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30을 더해 100을, 5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50을, 10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90을 보태 100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이백 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와 아이의 작은 음식으로도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피해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주일을 지내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독 속으로 물러가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요?